[특집]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

문화환경 우선하는 '복합단지'로

출판도시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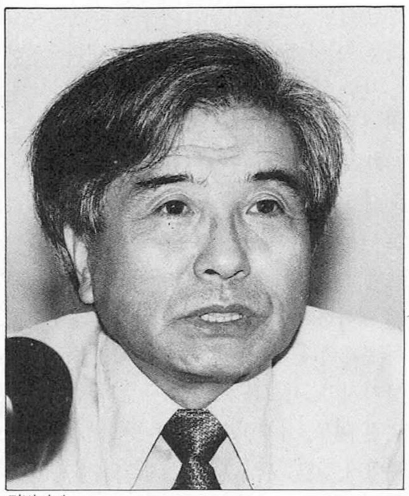
강병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도시설계

團地란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앞으로 개발하려는 토지의 꼴이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것은 일단의 시가지라든가 저자거리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特化된 기능의 집단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단지란 말이 어떤 특화된 기능들이 한곳에 모여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쓰였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발기취지문에는 그 명칭을 영어로 Korea Publishing city로 정하고 있다. City, 즉 도시는 복합적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단지는 어떤 도시나 지역의 한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대개의 경우 한가지 기능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한가지 기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수의 기능이 조합된 것에 불과하여 다양성이라는 도시의 본질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 **새로운 출판단지는 출판업에 관계되는 모든 생산기능을 한곳에 모아 거대한 하나의 조직체로서 움직이는 '콤비나트'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을 매료시킬 만한 재미있는 내용과 모습을 갖추어 문화예술의 창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강병기씨

생산기능을 '문화'로 승화시키는 공간으로

새로 만들고자 하는 출판단지는 마포에 있었던 출판단지와는 다른 것 같다. 마포의 출판단지가 출판활동 중의 몇가지 기능만을 한곳에 모았을 뿐이고, 나머지 필요한 모든 기능을 마포와 서울의 공간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출판단지는 출판활동에 직 · 간접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물론이고, 나아가 출판활동이 파생시킬 수 있는 발전적 기능까지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1950년대의 '콤비나트', 즉 어떤 공업생산분야에 관계되는 모든 생산기능들을 한곳에 모아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로서의 생산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사실을 연상케 한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출판단지는 '출판콤비나트'라 이름함이 발기의 뜻에 가깝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출판단지는 직접 생산을 담당할 출판사 뿐만 아니라 인쇄 · 제본 · 종이 등 출판관련 제작업체, 출판 제작물의 도매와 소매기능을 담당할 유통업체 등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면 출판물의 생산과 유통을 현재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량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임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나 출판단지 건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문화적인데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마치 공업단지 등을 내버려두어도 공업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문화적 기질을 가진 요소들이 모인다고 곧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생산이라는 목적의식에서 벗어나, 생산이라는 목적과 결과를 평가해 보고 반성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형성된다. 출판이라는 생산과정이 하나의 독특한 문화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 이외에 스스로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기능을 문화로 승화할 수 있는 기능과 공간이 필요하다. ① 각종 자료관 · 도서관 · 박물관 ②전시 · 공연공간 ③ 집회공간 ④ 음식 · 요식업소 ⑤ 활자매체 자체와 활자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예술분야를 위한 학교와 제작공간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출판산업의 여러 공정과 과정이 공개적으로 행해져, 많은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는 어떤 삶의 결과이지만, 때로는 목적일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기능들이 어떤 문화를 창출해 내는가는 이들 기능들의 존재양태와 상호작용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한다. 획일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대량으로 기획 · 편집 · 인쇄 · 유통시키는 단일가치적 대량생산의 출판산업은 단세포적 획일주의문화로 귀착한다. 같은 물량과 장비들을 몇십 몇백개로 나누어 종사자 각각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기획 · 편집 · 인쇄 · 유통시킨다면 같은 양의 물량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문화는 매우 다양성 있는 성질의 것이 된다.

이처럼 출판단지가 생산환경을 조성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출판을 통한 문화환경의 조성을 의도한 지역이라면, 단지는 물론이고 '콤비나트'라는 이름도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성싶으나, 그 입지가 서울에서 30~60분 거리에 있고 그 규모도 상주인구 5만 정도라면, 같은 도시라도 'Town' 정도가 알맞다.

수공업 수준에서 최신식 첨단수준까지

콤비나트는 일명 복합단지라고도 하듯이 복합조직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출판단지에는 많은 업체들이 모이게 하되 작은 것에서부터 거대한 것까지, 수공업 수준에서부터 최신식 첨단수준에까지, 만화 출판사에서 희귀본 출판사까지 되도록 다양한 업체들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실은 일반 도시에서 볼 때 처음부터 존재했던 현상은 아니고 전문화 · 대형화 · 흥망성쇠 · 元請下請 등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서서히 조성된다.

출판문화산업도시는 출판산업이라는 통일된 성격을 밑에 깔고 있는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분위기를 풍길 수 있다. 또한 출판이라는 유사기능 속의 다양성에 더하여 기능이나 업종의 다양성, 즉 복합요소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전자를 同種間 다양성이라 한다면, 후자는 異種間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종간 다양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近親交配에 의해 劣性化하지만, 이종간 다양성은 돌연변이 등의 자극을 일으켜 집단의 활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뜻에서 출판문화도시는 복합적으로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만약 몇몇 출판사만 출판단지에 입주하게 된다면 인쇄업체들을 비롯한 관련업체들은 거의 입주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많은 출판사들이 출판단지로 들어가 주어야 한다.

또한 관련업체가 들어온다 해도 그 수와 受注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출판사들의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할 뿐더러 관련업체들의 능력도 母機能이라 할 수 있는 출판기능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이처럼 이들 관련업체들이 안정적 조업에 자신을 가질 수 있느냐의 여부, 아울러 다양한 종류와 계층의 것들이 입주했느냐의 여부, 출판활동도 자유로이 전개될 수 있는가의 여부, 즉 안정적인 콤비나트로서 가동하기 시작한다는 예상이 확고해지는 일에 이 출판단지의 성패가 달려 있다. 생산물의 종류와 양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출판산업의 특성이 콤비나트를 형성하는데 최대의 난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문제를 극복한다면, 다음 단계의 과제인 문화적 특성을 확립하는 일은 출판계의 기획 · 편집부문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의 아이디어와 집필자들의 조언에 의해 서서히 가속화될 것이다.

토지관리는 공동소유 방식으로

현실적 문제로 직시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출판도시의 토지관리 방식이다. 입주자 개개인에게 분양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소유로 하여 입주를 포기하거나 나갈 때는 토지를 직접 매매하지 않고 입주공동체에서 매각(반환)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분양 방식을 택할 경우, 입주희망자와 토지수요는 많을 것이나 실제 도시의 건설은 지지부진하고 출판도시 건설의 처음 취지도 흐려지게 된다. 공동소유방식인 경우, 부동산 투자적 측면의 매력이 적어 입주희망과 토지수요가 많지 못할 것이나 단지의 건설이나 취지와 목적의 유지 · 발전은 지속적일 수 있다.

이 출판도시는 서울이라는 거대하고 다양한 매력의 도시 속에 이미 자리잡거나 즐기고 있는 현대인들을 매료시킬 만한 재미있는 내용과 모습을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의 창조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절대적 필요조건이 출판도시가 지니고 풍겨낼 수 있는 다양성이다.